

더 화려해진 바다분수...목포해상W쇼 26일 개막 공연

전국생활체전 연계...브브걸 공연·역동적 불꽃쇼 무대 꾸며
해상테크 관람석 2000석 중 500석 예약...올해 5차례 공연

‘2025 목포해상W쇼’가 한층 더 다채로운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목포시는 목포해상W쇼 개막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펼쳐진

다고 밝혔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광·스포츠 도시로서의 활기를 보여줄 역동적인 무대공연과 함께 더욱 화려



목포해상W쇼.

해진 불꽃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공연은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목포시립 합창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낭만 봄 바다를 노래하다’ 무대를 통해 낭만향구 목포의 감성과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그려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본공연에는 ‘롤린(Rollin)’, ‘운전만 해’ 등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브브걸’이 참여해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한층 더 화려하고 다채로워진 ‘춤는 바다분수’와 불꽃 공연이 케이팝에 맞춰 10여 분간 연출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관람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도 진행한다. 전체 2000석의 해상테크 관람석 중 500석은 목포해상W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행사 당일 자연사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사랑의교회, 해양수산청, 펠리시티몰 등 5개소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관람객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목포시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5월 31일 ▲7월 26일 ▲8월 16일 ▲10월 3일 등 올해 총 5회의 공연을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목포해상W쇼를 향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 공연도 성심껏 준비했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군 혼밥식당.

해남 ‘혼밥당당’ 식당 신청하세요

25일까지 10개소 추가 지정

“혼밥당당 식당 신청하세요.”

해남군이 1인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해남 혼밥당당’ 식당 지정을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2023년 말 전국 기준 35.5%)하는 것은 물론 홀로 여행객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해남군은 앞서 혼밥족에게 식사편의를 제공하는 혼밥당당식당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해남 주요 관광지들 중심으로 ‘혼자하는 식사(혼밥)도 당당하게’를 뜻하는 ‘해남 혼밥당당’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5개소의 혼밥당당식당을 지정했다.

올해는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오는 25일까지 모집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해남군 누리집에 게시

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군 관광위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된 식당에는 표지판 부착 및 해충방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지정 업소에는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업소는 관광위생분야 사업 신청 시기점 부여 등 혜택도 따른다. 또한 해남군 관광누리집 및 공식 SNS등을 통해 ‘혼자 식사하기 좋은 업소’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1인 손님은 늘고 있지만, 식당에서는 물가상승과 좌석 회전을 등을 고려해 1인분만 주문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남 혼밥당당에 동참등록 유도해 혼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암군, 대학생들과 관광 활성화·도시 재생 아이디어 찾는다

경희대 학생 15명 한 달간 참여
혁신스쿨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

영암군은 대학생들이 한 달여간 영암에 머물며 지역 혁신 아이디어를 내놓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암군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공동 추진하는 ‘2025 사회혁신스쿨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위한 베이스캠프가 군서면 구림한옥스테이 구립재에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엔 경희대에 재학 중인 디지털콘텐츠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미디어학과, 외식경영학과 등 15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 한 달여간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등 분야에서 로컬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청소년 멘토링 활동도 나서는 등 지역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다.

군이 대학생들에게 제안한 로컬브랜딩 주제는 ▲관광코스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농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지원 ▲도시 청년이 만나는 유기농 생태 체험 프로젝트 등 5가지다.

우대식 경희대 교수와 함께하는 이들은 통합사회복지관 조리실, 영암 매일시장 특화상점이 공유데이를 등 영암군 곳곳을 돌며 5가지 제안에 대한 혁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 교수는 “사회혁신스쿨 로컬브랜딩 프로젝트로 영암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콘텐츠 개발 능력도 높이겠다”며 “대학과 지역의 협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02년 자매결연을 맺은 영암군과 경희대는 지난해 11월 사회혁신스쿨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성공적 협력 모델 창출에 합의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진도군 96억 투입 공립노인요양원 준공·개원



진도군이 지난 17일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의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설진석 시장,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관계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기반 시설 확대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2890.25㎡ 규모로 신축됐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 개원으로 우리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잡는 미생물 개발 성공

바실러스 HN01...실증시험 착수

해남군이 고구마 재배 시 최대 악성 병해로 꼽히는 덩이줄기썩음병을 잡는 미생물을 개발, 실증시험에 착수했다.

개발한 미생물은 식물 내부에 공생하는 미생물인 내생균(endophyte)으로, 고구마에서 분리했다.

이 미생물 개발은 세계 최초로 명품 해남고구마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바실러스 HN01’로 명명된 미생물은 고구마 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병원균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방어체계를 형성한다.

고구마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보디가드’로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고구마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게 된다.

내생균 활용은 화학 농약 사용에 비해 친환경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방제 기술로도 주목하고 있다.

덩이줄기썩음병은 고구마 뿌리나 줄기에 침투해 부패를 유발하는 병해다.

육묘기와 생육기뿐 아니라 저장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어 수확 이후에도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병해로 알려졌다.



고구마 미생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이번 실증 시험에서는 고구마 육묘상과 노지 재배지에서 내생균 처리에 따른 고구마 생육 안정성과 병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고구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증 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내생균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고구마 재배 농가 공급도 단계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구마 농가의 최대 골칫거리인 고구마줄기썩음병 저감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내생균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 하당성당, 환경정화 활동 하며 선교 시간

입교자 환영하고 복음 실천

목포 하당성당(주임 박상선 헨리코 신부)은 입교식을 앞두고 지난 20일 성당과 주변 일대의 환경정화활동을 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걷게 될 입교자를 환영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하당성당이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복음 선교 방식이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본당의 다양한 단체와 일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본당 내부는 물론 주변 도로와 골목길까지 청소하는 것은 물론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신자들은 오전 기도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박상선 헨리코 신부는 “입교식은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곧 복음의 메시

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활동은 공동체가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배려로 복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참여 신자들은 청소 도중에도 지나가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성당을 소개하거나 입교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복음 선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고령의 신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대와 나이를 초월한 연대감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신앙의 유산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

정원석 남성 부회장은 “하당성당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사목 방향을 더욱 뚜렷히 하며 신자 각자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어울림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 선정

목포어울림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한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주관하고, 읍니버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추진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읍니버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씨앗 기르기’를 주제로 매주 그림책을 함께 읽고 책 놀이, 역할극,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목포어울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책과 함께 마음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